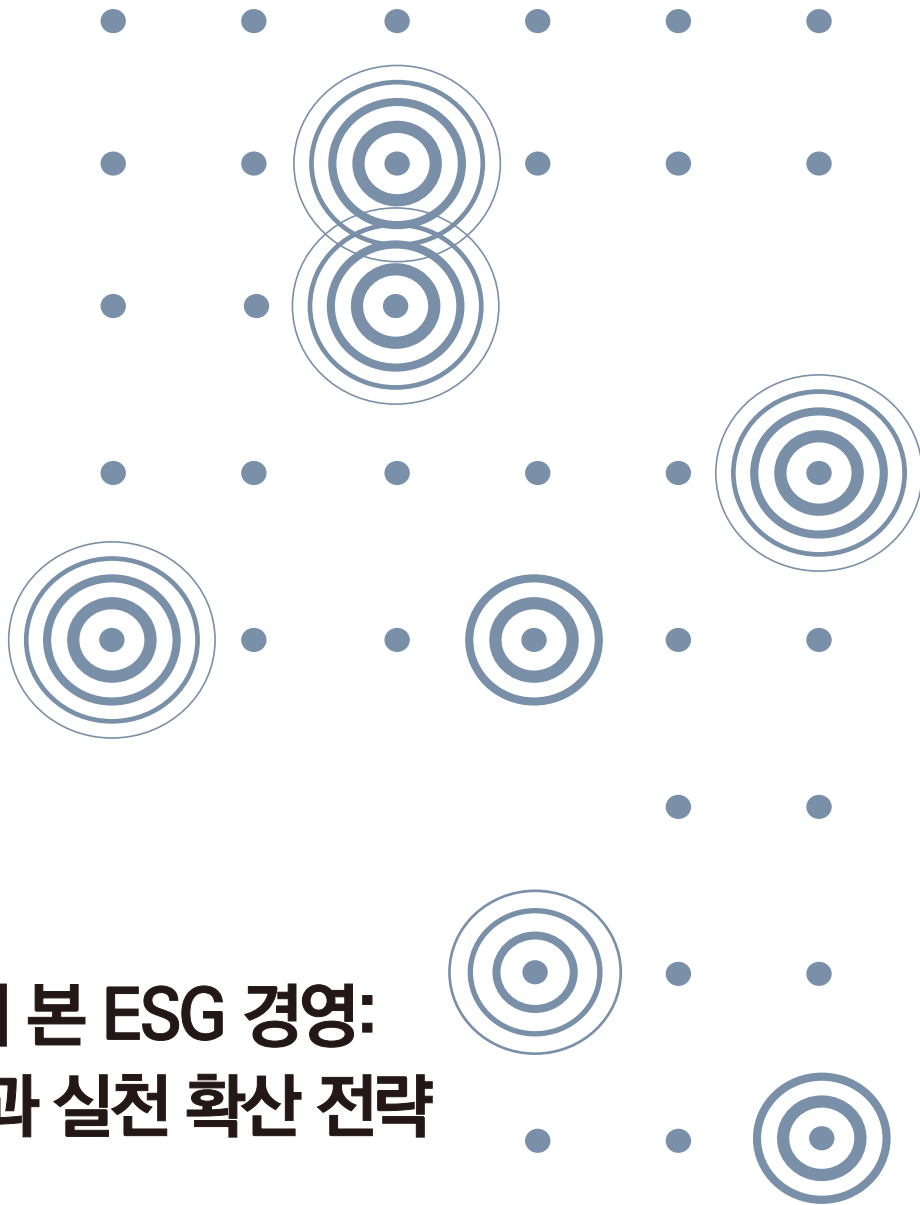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76호 2023. 8. 21



—
**공공의 관점에서 본 ESG 경영:
ESG 경영 도입과 실천 확산 전략**

황인창

연구위원

백종락

연구원

이윤희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76호

공공의 관점에서 본 ESG 경영: ESG 경영 도입과 실천 확산 전략

발행인 박형수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3년 8월 21일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 8. 21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376

공공의 관점에서 본 ESG 경영: ESG 경영 도입과 실천 확산 전략

황인창 연구위원
02-2149-1096
ichwang@si.re.kr

백종락 연구원
02-2149-1436
jrbaek@si.re.kr

이윤혜 연구원
02-2149-1270
yhhyi@si.re.kr

요약	3
I. 공공의 관점에서 본 ESG 경영	4
II. ESG 경영 정책 사례와 서울시 수요 분석	8
III. ESG 경영 도입과 실천 확산 전략	13
IV. 정책제언	16

요약

ESG 경영은 기후위기와 투자자의 관심에서 촉발된 것으로 기업의 생존전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ESG 경영 선순환 강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가치창출 지속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적 편익은 지속가능한 사회, 도시, 국가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공적 편익도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SG 경영 선순환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공공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ESG 경영은 기업의 경제활동, 도시의 지속가능성, 시민 삶의 질과 직결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 관점에서 ESG 경영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제활동, 도시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ESG 경영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회적 허가(social license)와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ESG 경영정책을 마련해 기업과 공공 영역(행정조직, 공기업, 출연기관 포함)이 변화하는 사회 규범과 기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ESG 경영을 위해서는 정책 패키지를 통한 통합적 접근 필요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정책 패키지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는 중대성 평가, 공시, 금융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정부 행정과 사업영역,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통합적 접근방안을 제안하였다.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기관의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 필요

공공정책으로서 ESG 정책은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관의 가치창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그린 워싱, 사다리 건너차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에 ESG 경영 요소를 도입하여 리더십을 강화하는 과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ESG 경영 민간확산을 유도하는 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ESG 평가 확대와 정보 공개, 경영평가 개정, 공공조달 기준 개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

I. 공공의 관점에서 본 ESG 경영

I ESG 경영에 대한 시민과 투자자, 공공의 관심 증가

ESG 경영, 기후위기·투자자 관심에서 촉발 ... 기업 생존전략과 강하게 연결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
 - 기존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별 요소와 기업 경영의 상호작용에 관해 많은 개념이 활용되어왔지만, 기업의 역할에 관한 기존 개념은 기업 이미지 제고나 그린 워싱(green washing) 측면이 강했음¹⁾

[표 1] ESG 개념과 지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념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들이 포함되며,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의 요소가 포함되고, 최근 인권, 안전·보건 등에 대한 이슈가 화두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영역으로 이사회 구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및 감사기구 등이 강조
K-ESG 지표	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목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사회 법/규제 위반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 권리, 윤리경영, 감사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을 바탕으로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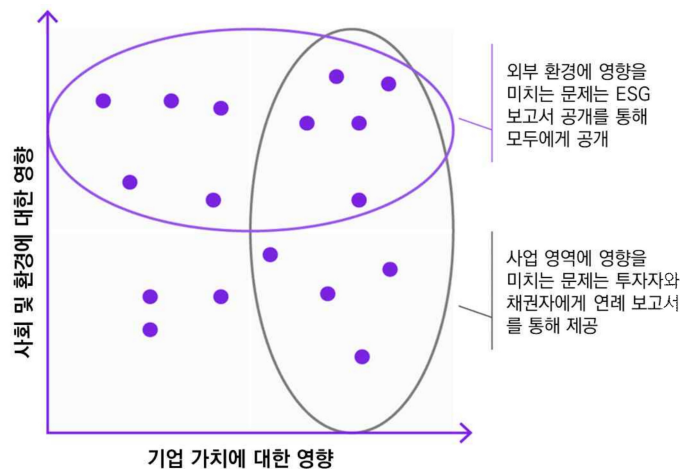
- ESG 경영은 기후 위기 관련 국제 사회의 요구(탄소중립)와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중대성 평가) 등에서 촉발된 것이기에 기업의 생존 전략과도 강하게 연결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제도권과 시장에서는 ESG 관련 지침과 표준을 마련하여 활용
 - 유럽연합(EU) 택소노미(taxonomy),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EU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SFD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SG 공시제도, 미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국내에서도 정부와 시장에서 국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ESG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K-택소노미, K-ESG 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확대, 환경정보공시 확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
-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평가하고, 관련 핵심 지표(비재무 지표)를 관리하며, 이를 이해당사자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ESG 경영의 핵심 요소
 - ESG 경영에서는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사회적 규범 아래에서 기업의 이윤 창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기업의 활동이 사회와 환경, 이해당사자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주요 관심(이중 중대성)

1) 조신, 2021, 넥스트 자본주의 ESG, 사회평론

I ESG 경영 확대 정책의 필요성

기업과 기관의 중장기적 가치 지속성 관리 필요

-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사회적 규범은 기업과 기관의 경영에 있어 재무적으로 그리고 비재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로 탄소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동성 강화로 기상 재해는 기업과 기관의 중장기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²⁾
 - 지속가능 회계기준 위원회(SASB) 등 국제표준과 글로벌 투자자들은 공급망을 포함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ESG 평가와 관리 요구
 - 콩고 ‘코발트 레드(Cobalt Red)’, 필리핀 ‘캐나다의 눈(Snow from Canada)’, 중대재해 처벌법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기업과 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³⁾
- ESG 경영에서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이중 중대성은 기업과 기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사회적 중대성과 기업가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하여 기업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재무적 리스크와 비재무적 리스크 모두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개념
 - 환경·사회적 중대성은 기업이나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
 - 기업가치 중대성은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기업이나 기관의 중장기적 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비재무적 가치도 포함



자료: Bovis, B. et al., 2022, How to integrate ESG and transform your company for the better (p.2), Kearney

[그림 1] 이중 중대성 평가

2) 황인창 외, 2021, 서울시 산업경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서울연구원; 아시아경제 기사(2023.1.27.), 포스코홀딩스 어닝쇼크 태풍·업황부진에 1.7조 증발한 탓

3) 리베카 핸더슨, 2021, 자본주의 대전환, 어크로스; Magalang, M. R., 2005, Historical overview of and updates on mining in Marinduque and its impacts, Marinduque Council of Environmental Concerns; <https://otterletter.com/tears-of-congo/>

- 기업이나 기관은 고유 사업 영역별로 환경·사회적 중대성과 기업가치 중대성을 평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 중대성 평가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민에게 공시
 - 기업이나 기관의 가치 창출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

ESG 경영은 지역 소재 기업과 기관의 경제활동, 도시의 지속가능성, 시민의 삶의 질과 깊은 관련

- 정부와 지자체는 ESG 경영정책을 마련해 기업과 공공 영역(행정조직, 공기업, 출연기관 포함)이 변화하는 사회규범과 기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 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변화하는 사회 규범과 기후 환경 아래에서 이윤 창출의 지속성이 낮아지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
 - 서울에서는 종사자 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산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사업체 수 기준 99.3%, 종사자 수 기준 64.5%)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⁴⁾
 -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을 포함해 지자체의 자체 행정과 사업영역도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회규범과 기후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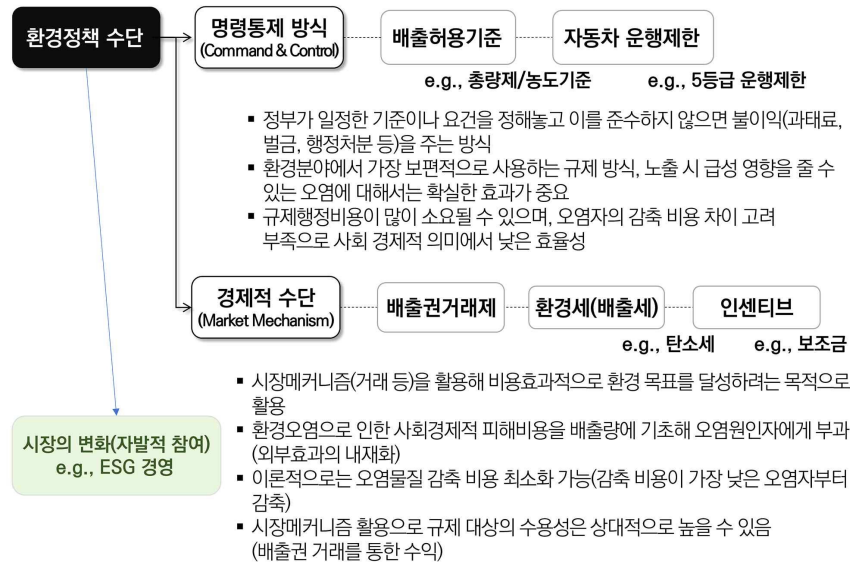
ESG 경영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의 성과 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ESG 경영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법
 -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의 불완전성(외부효과와 같은 시장의 실패)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명령통제 방식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구성(경제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⁵⁾
 -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하기 위한 정책 대안 필요
 - 최근 투자자, 기업, 소비자 등 시장의 변화는 ESG 경영이 환경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 조건의 하나로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은 투자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경성과 관리를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외부효과의 내부화)
 - 밀레니얼(millennials)과 Z(MZ)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윤리, 환경, 공정 등 가치 영역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일자리 선택, 제품 소비, 자산 투자 등을 통해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⁶⁾

4) 황인창 외, 2021, 서울시 산업경제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 서울연구원

5) 황인창·백종락, 2020,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서울연구원

6) <https://www.cnn.com/2021/05/21/millennials-spurred-growth-in-esg-investing-now-all-ages-are-on-board.html>



주: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황인창·백종락, 2020,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위한 경제적 수단 도입 방안 (p.35), 서울연구원

[그림 2] 환경정책 수단 유형과 사례

ESG 경영은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사회적 허가(social license)와 연결

- 기업 활동에 관한 정부의 허가권과 유사 개념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관련)
 -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 가능
- ESG 경영 실천은 사회적 허가를 위한 핵심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
 - 절차적 공정성, 지역주민과 관계의 질, 산업과 사업내용에 대한 신뢰, 협치, 분배적 공정, 지식기반, 영향과 편익에 대한 인지 등이 사회적 허가와 관련한 핵심 요소⁸⁾

ESG 경영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구축

- 서울은 지난 반세기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구축
 - 국제 자치단체 환경 협의회(ICLEI), C40 기후리더십 그룹,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 협의회(EACAC),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럼 등 글로벌 환경 협의체의 주요 회원으로서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관련 다양한 글로벌 의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
- 최근 글로벌 관심사로 떠오른 ESG 경영 분야에서도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ESG 경영이 더욱 확산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도시로서의 리더십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7) Boutilier, R.G., 2014,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social license to operate", Impact Assessment and Project Appraisal, 32(4): 263-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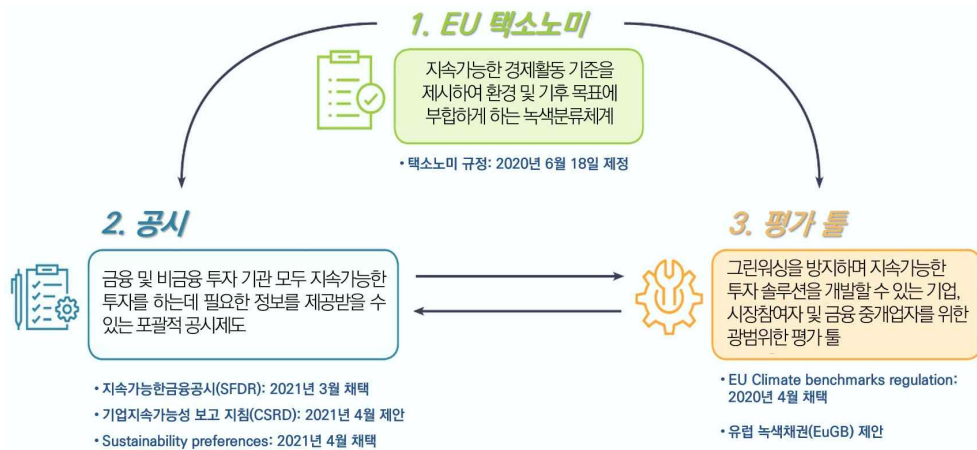
8) Walton, A. and McCrear, R., 2020, "Understanding social licence to operate for onshore gas development: How the underlying drivers fit together", Applied Energy, 279, 115750

II. ESG 경영 정책 사례와 서울시 수요 분석

I 정책 사례 분석: ESG 정책 패키지를 통한 통합적 접근

유럽연합과 토론토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지속가능성 확대와 EGS 경영 실천 지원

-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ESG 경영을 유럽연합의 탄소중립과 그린 딜(green deal)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
 - EU는 녹색 분류체계, 공시 규정, 이행지원 도구 등 3가지 분야로 정책 패키지 구성
 -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하고 자금 투자에 활용
 -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지속가능성 선호 수탁자 의무 규정 등을 통해 ESG 경영 관련 공시제도 강화
 - 기후 벤치마크(climate benchmark) 규정과 녹색채권(green bond) 규정을 도입해 정부와 시장, 시민이 기업의 ESG 경영활동을 평가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EC, 2021, Strategy for Financing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 (p.2), European Commission.

[그림 3] 유럽연합의 기업 경영을 위한 지속가능성 정책 패키지

- 토론토는 중대성 평가, 공시, 금융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ESG 경영 실천
 - 캐나다 정부와 협력하여 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시 정부와 산하기관에 적극 도입
 - 캐나다는 공인회계사 협회(CPA)에 의뢰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토론토는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ESG 성과보고서 매년 발행
 - 토론토는 중앙정부, 몬트리올, 밴쿠버와 함께 '도시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개발, 시 재무 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중
 - 국제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ISSB)가 전 세계 도시에 적용할 공시표준을 제정하도록 요구
 -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기후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기후 렌즈(climate lens) 사업 시행

- 시 정부의 금융 투자 시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투자정책 규정 개정
- ESG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녹색채권과 사회적 채권 발행

[표 2] 토론토의 ESG 경영 관련 핵심 고려 요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핵심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 회복력(resili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 사회적 권한 부여와 진보(social empowerment and advancement) • 경제적 포용(economic inclu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거버넌스 실천 • 재정적 거버넌스 • 행동과 신뢰(conduct and trust) • 리스크관리 • 사이버안전과 정보보호 • 포용과 다양성 • 건강과 복지 • 인재 채용, 양성, 관리 • 디지털 역량 강화 • 책임 조달과 공급망 다양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재정, 사회적 책임 투자 		

자료: City of Toronto, 2022, City of Toronto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 (ESG) Performance Report (p.12)

Ⅰ 이해관계자 대상 ESG 경영 현황과 정책수요 분석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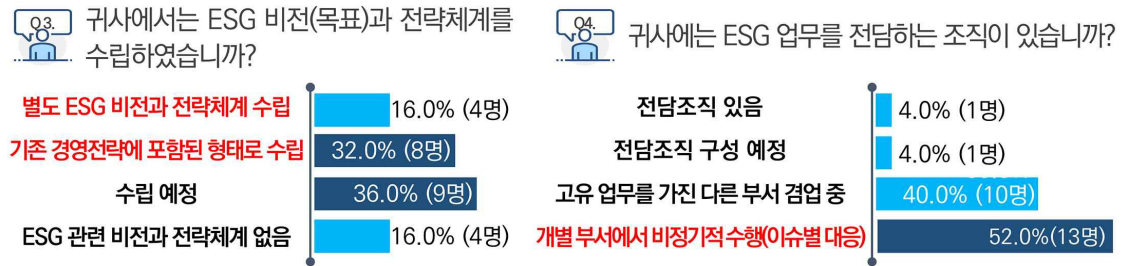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ESG 경영 현황과 정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 공공부문 조사대상은 서울시 전체 27개 공공기관(6개 공기업, 21개 출연기관)이며, 경영 평가 담당 부서의 부서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면 방식 조사(2022년 4월)
 - 개별 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ESG 경영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 ESG 도입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문지 구성
 - 분석적 계층화 분석(AHP) 기법을 활용해 ESG 경영 요소별 중요도 평가
 - 민간부문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방문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 수행(2020년 5월~6월)
 - 모집단인 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업종별 분포 특성을 반영해 조사 업체 수 할당. 다만, 조사 업종은 서울시에서 중요도가 높은 상위 10개 업종(도소매업,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제한
 - 표본 추출된 310개 기업의 임원 또는 경영 관련 부서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9) 자세한 결과분석은 다음 보고서 참고: 황인창 외, 202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공공부문(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조사 결과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대체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중요성도 높게 평가하지만, ESG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제 기관 운영시스템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 기관의 경영성과와 ESG의 관련성 등 ESG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ESG 경영에 대한 제도권 요구(57%)와 시민 인식 변화(26%)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것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예정 중이나, ESG 경영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향후 구성 예정인 기관은 2곳에 불과



[그림 4] 공공기관 ESG 경영전략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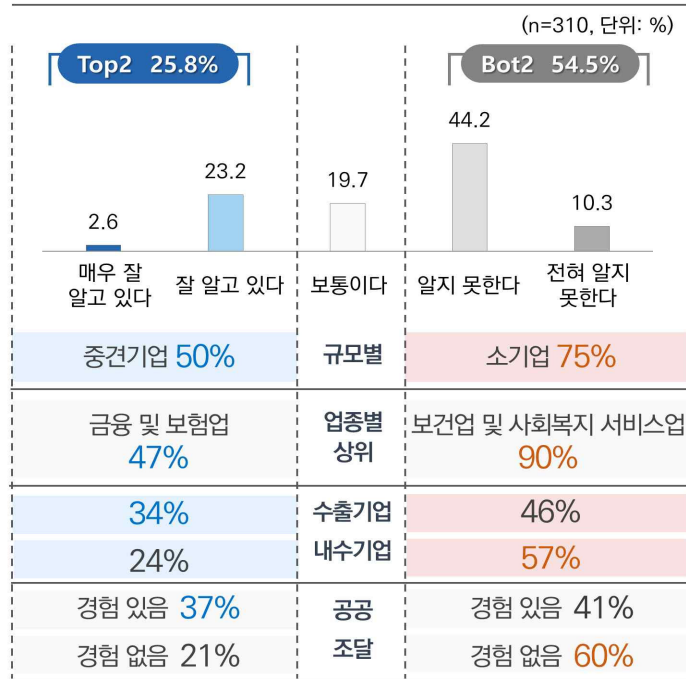
-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어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환경 영역에 대해서는 관리 부족
 - 전통적으로 사회적 공헌이 강조되어 온 공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상위 기관이나 시민사회의 요구, 평가 체계에 반영)
 - 환경 영역과 같이 경영평가로 관리되는 지표 이외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관심도가 낮고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컨설팅을 경험한 곳이 적어 전반적인 ESG 성과는 높지 않음
 - 공공기관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의회와 시 정부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지배구조 영역은 민간기업에 비해 민감도가 높지 않음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자 필요한 지원책이 정보 부족과 재정적 문제라고 응답
 -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
 - ESG 경영 관련 전담인력이 없고 ESG 업무를 고유 업무와 병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기관 차원의 ESG 대응이 이슈별 대응에 그치기 쉽고 단기적 관점으로 진행되기 쉬움
 - 대부분 기관이 ESG 관련 자료 수집과 정보공개를 위해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사점과 정책 방향

-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과 인력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 정부 차원에서 조직구조 개편 등을 통한 인력배치 효율화와 ESG 사업을 위한 예산 수립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현재 공공기관에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환경 분야 지표 관리, ESG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과 전담 인력(조직) 필요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평가 지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에서는 11개 섹터 77개 산업에 대해 업종별 지속가능성 이슈를 검토한 후 업종별 공시기준 마련
- 단기적으로는 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하고,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필요
- 중장기적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ESG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 필요

민간부문(중소·중견기업) 조사 결과

- 중소기업에서는 응답자의 55%가 ESG 경영을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
 - ESG 경영이 실제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에 불과하며, 소기업·내수기업·공공조달 경험이 없는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인식이 낮음
 - ESG 경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거나 실행 체계를 갖춘 곳 역시 적고 ESG 성과도 낮음
- 응답자의 47%는 ESG 경영 요소 중 환경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환경 요소 관련 지표 보유율은 11%에 불과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13%,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보유율은 5%에 불과. 다만 인증을 보유한 기업의 80% 이상은 인증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사업별로 10~20%에 불과, 지원사업 활용 경험은 1~6%에 불과
 -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는데,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가 필요함을 확인
 -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48%)
- 추가 업무부담, 비용 등의 이유로 ESG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비율은 27%에 불과
 -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아 공공기관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



[그림 5]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인지 응답결과

○ 시사점과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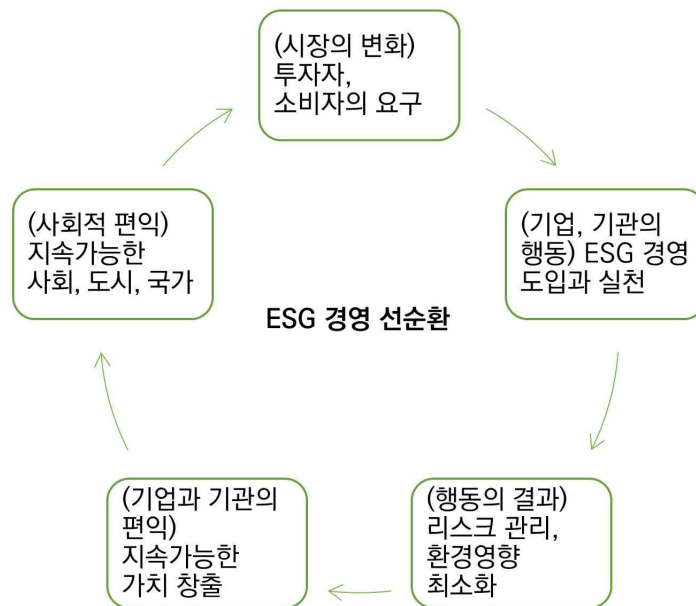
-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 달리 중소·중견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낮아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중요
- 단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 공공조달 시 ESG 경영 요소 반영, ESG 진단, 경영전략 수립,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필요
 - ESG 경영 컨설팅 지원, 대기업(협력업체) 상생 프로그램 활용 독려, ESG 경영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초자료 수집 등의 기술지원(국가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공급업체 ESG 평가 대응 지원, 공시 지원, 컨설팅 지원 등

Ⅲ. ESG 경영 도입과 실천 확산 전략

Ⅰ 정책 목표와 주체별 역할

정책 목표

- 공공정책으로서 ESG 정책은 ESG 경영의 선순환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관의 가치 창출 지속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ESG 경영은 기업과 기관이 핵심 가치를 변화하는 사회와 기후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영전략
 - 기업에게 핵심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와 경영진, 노동자이며 이러한 점에서 기업의 핵심 가치는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
 - 공공기관과 공기업에게 핵심 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시민이며 이러한 점에서 공공기관의 핵심가치는 지속가능한 사회 복리후생 창출
 -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통해 기업과 기관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기업과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이는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라는 사적 편익을 기업과 기관에게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도시, 국가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편익도 제공



[그림 6] ESG 경영과 사회경제적 편익

주체별 역할

- 정부와 지자체는 시장행위자들이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잘 실현하도록 돕고, ESG 경영이 또 다른 시장 왜곡(그린 워싱, 사다리 걷어차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 정부는 기업 ESG 경영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려 하거나 규제를 통해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됨
 - 정부는 ESG 경영이 그린 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하는 역할 수행
 - 대기업이나 투자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감독의 권한을 행사
 -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ESG 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
 - 정부와 지자체는 ESG 경영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¹⁰⁾
 - 역량이 부족한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시장이 강조하는 ESG 경영 조건(ESG 투자 기준 강화와 공급망 관리 등)은 또 다른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관련 역할을 행사
- 기업과 기관은 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지표를 관리하며, 대내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함

[표 3] 서울시 ESG 경영 확대 전략

구분	공공기관과 공기업 ESG 경영 확대	ESG 경영 민간 확대 지원
정책 목표	(변화하는 기후 환경 반영, 중장기적 관점) 중대성 평가 관점에서 바라본 기관(기업)의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확대	
	기관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 기관의 가치 (사회복리후생) 창출 지속 → 사회복리후생 극대화 + 환경 영향 최소화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감 + 기업의 가치(지속가능한 현금 흐름) 창출 지속 → 지역 경제 활성화 + 환경 영향 최소화
주체별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기관): ESG 경영 전략 수립, 핵심 지표 관리, 대내외 정보 공개 • 정부(지자체): ESG 선순환 강화를 위한 감독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는 그린 워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감독 - 지방정부는 정보 제공과 진단 및 컨설팅 지원으로 ESG 투자 기준 강화, 공급망 관리 등이 사다리 걷어차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취약 산업 지원(중소·중견기업) 	

10) 장하준, 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I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전략적 접근

조직의 설립 목적, 지배구조, 운영방식, 이해관계자, 시행 권한 등이 달라 별도 접근 필요

- 서울시 행정, 산하기관, 공기업의 ESG 경영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중대성 평가를 바탕으로 서울시 ESG 보고서 발행, 서울시 재무보고서에 기후리스크 반영 등을 통해 공공부문 ESG 경영 리더십 강화
 - 녹색예산제도(green budgeting)¹¹⁾ 등 도입으로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 영역에서의 ESG 도입과 실천 유도
 - 기관 경영평가 등을 활용하여 산하기관 ESG 경영 유도
- ESG 경영 민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ESG 도입 유도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재정 및 기술지원으로 역량강화 유도
 - 녹색금융 활성화,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한 ESG 사업 자원 마련

11) OECD, 2021,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OECD Green Budget Framework, OECD Publishing

IV. 정책제언

I ESG 경영 선순환 강화로 기업·기관 가치창출 지속성 확대

산하기관과 공기업을 포함한 행정과 사업 분야에서 ESG 경영 요소 도입으로 리더십 강화

-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 ESG 경영 요소 도입
 -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지자체 재무보고서에 포함하고, 현행 지자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확대해 중대성 평가를 반영한 ESG 보고서 발간 추진
 - 기후예산제의 개념을 확대해 예산 집행을 포함한 시정 활동 영역에서의 ESG 영향을 평가하는 녹색예산제 또는 (가칭) ESG 예산제 도입 추진
-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 유도
 -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투자기관(공기업) 핵심가치평가 지표에 ESG 요소 반영
 - 출연기관과 투자기관에 대한 ESG 진단과 컨설팅, 자료 구축을 지원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과 ESG 평가 방안 마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통해 ESG 경영 민간확대 유도

-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ESG 요소를 추가하여 ESG 경영 민간 확산 유도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ESG 평가, 공급업체 대응, 공시, ESG 지표 관리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녹색금융 등을 활용한 ESG 정책사업 재원 마련
 -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여 현행 서울시 기금을 ESG 정책 사업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시 금고를 활용한 ESG 경영 지원 정책금융 상품 개발, ESG 채권(녹색채권, 사회적 채권 등) 발행, 시 투자정책에 ESG 요소 반영 등 추진
 - 여의도 녹색금융 특화지구 지정 및 시범사업
-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에 ESG 경영 요소 도입으로 리더십 강화	-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 ESG 경영 요소 도입(ESG 평가 확대와 정보 공개) -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 유도(경영평가 개정 등)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ESG 경영 민간확산 유도	-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ESG 요소를 추가해 ESG 경영 민간확산 유도 -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 녹색금융 등을 활용해 ESG 정책사업 재원 마련 -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I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에 ESG 경영 요소 도입으로 리더십 강화

공공 행정과 사업 분야 ESG 경영 요소 도입(ESG 평가 확대와 정보 공개)

-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 공개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안 발표(2017년) 이후 유럽과 북미 등의 주요 국가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재무공시 제도화¹²⁾
 - 캐나다 토론토는 캐나다 정부의 ‘도시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9년부터 시 재무보고서에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중
 - 서울에서도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 필요
 - 중앙정부, 공인회계사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공공부문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개발
 -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 포함

[표 4] 캐나다의 기후변화 관련 도시 정부 재무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시장과 시의회의 관리 사항을 설명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을 설명
전략	식별된 도시의 단기·중기·장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설명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시의 사업전략과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도시 전략 차원에서의 회복력을 설명
위험 관리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의 프로세스를 설명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의 프로세스를 설명
목표 설정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시의 전체 위험 관리에 통합되는 방법을 설명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시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공개
	Scope1 및 Scope2와 해당하는 경우에 Scope3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을 공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시에서 사용하는 지표를 설명

자료: CPA, 2019, Enhancing Climate-related Disclosure by Cities: A Guide to Adopting (p.4),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Canada

- 중대성 평가를 반영한 ESG 정기 보고서 발간
 -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시 행정과 산하기관 특성을 고려한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중대성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ESG 연례 보고서 발간
 - 현행 서울시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서울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
 - 중대성 관점에서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에서의 핵심가치 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도록 내용적 범위 확대

12) 국내에서는 2023년 4월 현재 166개 기업과 기관이 TCFD 지지 선언(<https://www.fsb-tcfd.org/supporters/>) (2023.4.24. 접속)

- 예산 집행을 포함한 시정 활동 영역에서의 ESG 영향 평가
 - 서울시의 행정과 사업영역이 지속가능성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하고, 기관의 가치 창출 지속성을 도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후예산제도 개념 확장 필요¹³⁾
 - 지역과 조직의 예산 관련 의사결정 도구를 활용해 환경 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한 절차와 제도로서 녹색예산제도(green budgeting) 도입
 - 환경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 조직 가치의 지속성까지도 고려하는 (가칭) ESG 예산제도 도입: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 행정과 사업영역으로 대상 확대

산하기관과 공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실천 유도(경영평가 개정 등)

- 경영평가와 핵심 가치평가 지표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 ESG 경영 도입 유도
 - 경영평가 지표 내 ESG 요소 반영은 ESG 경영 도입과 실천을 위한 강한 인센티브
 -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시 자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며, 지방 공기업은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와 함께 서울시 자체 핵심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 결정
 - 단기적으로는 ESG 경영전략 수립, 환경경영 분야 등 기존 경영평가, 핵심 가치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요소를 지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¹⁴⁾
- 중장기 개선방안
 -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여 독립 배점
 - ESG 경영원리 구현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진단 및 평가 의무화
 - 자료 수집 등 실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ESG 경영 관련 지표 추가(예고지표 활용)
 - 다른 기관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한 정량평가로 평가방식 변경
 - 지표별 특성을 파악한 후 업종별로 벤치마크(benchmark) 방식 등을 활용해 목표량을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는 정도를 점수화하는 방식 도입¹⁵⁾
 -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방안 마련
 - SASB 기준에 따라 서울시 공공기관을 구분하면 8개 섹터에 분포
 - 기존의 경영평가 지표체계를 ESG 요소 중심으로 재편
 - 대내외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인식확산 효과 기대

13) 유정민 외, 2023, 서울시 2022년 기후예산 분류와 기후예산서 작성지침, 서울연구원

14) 서울시는 황인창 외(2022)가 제안한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서울시 유관부서와 산하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황인창 외, 202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서울연구원

15) 기관 유형별로 성과 지표 원단위를 분석한 후 유형별로 동일 유형에 속한 기관이 따라야 하는 표준 원단위 기준을 부여하는 방식

[표 5]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내 ESG 요소 반영

ESG 항목	반영 내용
ESG 경영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관장 조직관리 리더십' 내 ESG 전략 수립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 평가항목 내 추가 - '기관장 조직관리 리더십' 항목 배점 1점 추가(기존 2.0 → 변경 3.0점) • 제3자 평가 및 진단 미반영
환경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책임 분야 내 하위항목으로 예고지표 반영 • 에너지 절감량 및 용수 절감량 지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성)에너지 및 용수 절감량 - (정량)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정성)제로웨이스트 노력

자료: 서울특별시, 2022,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안)

[표 6] 서울시 공기업 핵심 가치평가 지표 내 ESG 요소 반영

ESG 요소	반영 내용
ESG 경영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철학 구현 노력' 정성평가 지표 내 평가항목으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경영계획 수립여부) - '시정철학 구현 노력' 항목 배점 1점 추가(기존 5.0 → 변경 6.0점) • 제3자 평가 및 진단 미반영
환경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핵심과제 추진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환경경영' 반영(예고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ESG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기관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 이행 수준 평가 - 제로웨이스트 노력(정성평가) - 용수 절감량(정량평가)

비고: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친환경차량 구매 실적 등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 중복성 문제 등으로 핵심가치 평가에는 미반영

자료: 서울특별시, 2022, 2023년(2022년 실적) 서울시 투자기관 핵심가치평가 평가 편람(안)

[표 7] SASB 기준에 따른 서울시 산하기관 분류

서울시 산하기관	섹터	지속가능성 이슈	
		분야	주요 이슈
소비재	사회적 자본		제품의 품질&안정성
		비즈니스모델·혁신	제품디자인·주기관리, 공급망관리
	환경	GHG배출, 공기질, 수질관리, 위험물질관리, 생태적 영향	
채광·광물 가공	인적자본		직원 건강·안전
	리더십·거버넌스		위험사건 리스크관리
	금융	사회적 자본	판매업무·상품표시
신용보증공단	비즈니스 모델·혁신		제품디자인·주기관리
		리더십·거버넌스	경영윤리, 전반적 리스크 관리
	환경		GHG배출, 에너지관리, 수질관리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회적 자본		제품 품질·안정성, 소비자복지, 판매업무·상품표시
		비즈니스 모델·혁신	제품디자인·주기관리, 공급망관리, 자재공급·효율성
	헬스케어	사회적 자본	데이터보안, 접근성·가용성, 제품 품질·안정성, 소비자복지, 판매업무·상품표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리더십·거버넌스		경영윤리

[표 7] SASB 기준에 따른 서울시 산하기관 분류 (계속)

	섹터	지속가능성 이슈	
		분야	주요 이슈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반시설	인적자본	직원 건강·안전
		비즈니스 모델·혁신	제품디자인·주기관리, 비즈니스모델 회복탄력성
서울에너지공사	재생자원· 대체에너지	환경	에너지관리, 수질관리
		비즈니스 모델·혁신	제품디자인·관리, 자재공급·효율성
	자원변형	환경	에너지관리, 위험물질관리
		사회적 자본	제품 품질·안정성
		비즈니스 모델·혁신	제품 디자인·주기관리, 자재공급·효율성
서울연구원 외 13개 기관	서비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서울미디어재단	기술· 커뮤니케이션	환경	에너지관리
		사회적 자본	고객 프라이버시, 데이터보안
		인적자본	직원 참여, 다양성·포함
		비즈니스 모델·혁신	제품 디자인·주기관리, 자재공급·효율성
		리더십·거버넌스	경쟁적 태도
서울교통공사	운송	환경	GHG배출, 공기질
		인적자본	직원 건강·안정성
		리더십·거버넌스	위험사건 리스크관리

자료: 김예나, 2021,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ESG 정보공개 차별화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p.11~12)를 바탕으로 연구진 수정

I 중소기업 대상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ESG 경영 민간확산 유도

공공조달 적격심사 기준에 ESG 요소를 추가해 ESG 경영 민간확산 유도

- 서울시 공공조달 평가항목에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하여 ESG 경영 민간 확산 유도
 - 현행법률상 계약 평가단계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심사’의 신인도 항목¹⁶⁾
 - 신인도 항목에 ESG 경영 요소를 추가하고 가점 방식 적용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환경경영 우수기업과 ESG 경영 추진 기업에게 가점 부여

[표 8]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세부기준 개선방안

구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현행		개선안	
			배점한도	평점	배점한도	평점
신인도	소계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13.5 ~ -17		+15.5 ~ -17	
	ESG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 추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진단 또는 평가를 받은 기업 - ESG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한 기업 • 환경경영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 관련 인증 기업 			2	1 (0.5) (0.5) 1

-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평가기관의 ESG 경영 평가 결과를 활용해 가점 차별화. 다만, 중장기 방안에서는 가점 중복 방지를 위해 사회 요소와 관련된 기존 지표들과 통합 필요
-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공조달 ESG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조달 참여 기업을 평가한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가능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 디지털 플랫폼과 ESG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원
 - ESG 경영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국제표준과 협력사의 요구에 대한 대응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돕고 ESG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
 - ESG 경영 도입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진단, 컨설팅 지원
 - ESG 도입과 실천을 위한 정책자금 컨설팅 및 지원 창구 역할 수행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ESG 평가방법론 제공, 평가자료 구축 지원(공공데이터 연계)
 - 디지털 ESG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지원
 - 디지털 ESG는 디지털 전환 활동의 하나로서 기업이 공급망을 포함해 ESG 정보와 성과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 프로그램

16) 협상에 의한 계약 개선방안은 일반용역 개선방안과 유사하여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 글로벌기업 바스프(BASF)는 대시보드(dashboard) 형태의 Digital ESG 시스템을 도입, 자사의 ESG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 관리



자료: <https://www.basf.com/> (2023.4.24. 접속)

[그림 기] BASF의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

녹색금융 등을 활용해 ESG 정책사업 재원 마련

-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기금 활용처를 확대하고 정책금융 개발
 - 현행 서울시 기금을 ESG 정책 사업에 활용가능하도록 기금 관련 조례 개정
 - 중앙정부, 시 금고 등과의 협력을 통해 ESG 경영 도입과 실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개발
 - 시 투자정책에 ESG 요소 반영
- 장기적으로는 녹색채권이나 사회적채권 등 ESG 관련 채권을 발행해 ESG 경영 지원을 위해 활용
 - 일본 도쿄 및 캐나다 토론토 등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 규모로 녹색채권 혹은 사회적채권을 발행해 ESG 도입과 실천을 위한 사업에 활용
- 여의도 녹색금융특구 지정 등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 국내에서도 금융업계는 기후리스크 대응과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어 녹색금융특구 지정에 대한 수용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영국 런던에서는 시티오브런던을 녹색금융 특구로 지정해 다양한 녹색금융 사업 수행
 -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를 녹색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 추진
 - 금융사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연계),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목표 제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ESG 계획 수립, 녹색금융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 서울시는 중앙정부, 금융 감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 민간기업과의 협력 사업 강화

- 경제단체와의 ESG 경영 협의체 운영, 친환경사회공헌 상생모델 구축(에너지복지시민기금 연계), 녹색기업 기술개발과 창업 지원 등 협력사업 발굴 및 수행

[표 9] 서울시 민간기업 협력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경제단체와 친환경 경영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한 고위급-실무급 협의체 구성·운영 • 친환경 경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공동선언문 발표 • 협의체를 통한 기업 환경 교육수요 파악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친환경 사회공헌 상생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탄소배출권을 연계한 협력모델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기업기부 확대 - 기업기부를 통해 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친환경 경영 전환 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납품, 해외수출 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고효율 설비 전환,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ESG에서 요구하는 기준 충족이 필요하나 다수 중소기업들이 ESG에 대한 인식 부족, 자가진단 미흡 • 친환경·ESG 우수등급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별 컨설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업별 자문 실시, ESG 자가진단, 추진전략 등 ESG 대응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2022년 시범사업(50백만 원, 10개 기업) 후 수요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
녹색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저감 등 市 필요 환경기술 개발 • (창업지원) 녹색기업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 창업컨설팅 지원 • (판로개척) 생산된 녹색제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테스트베드) 친환경 신기술 보유 기업의 실용성 검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신기술 검증 및 육성을 위한 녹색신기술 실증연구 접수소 운영 - '22년 11억 원 연구개발비 지원, '26년까지 연간 20억 원으로 확대

자료: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내부자료 (2022년)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